

# 동화작가들이 기록한 세월호 참사

6주기 맞아 동시·동화로 집필한 '슬이는 돌아올 거래' 내놓아... 판매 수익금 '팽목바람길'에 기부

동화 작가 김하은, 윤혜연, 이풍, 임정자, 전경남, 정재은과 동시 작가 유하정, 이영애.  
2020년 4월 16일 어린이 문학인들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마음을 담은 작품들을 모아 '슬이는 돌아올 거래'를 내놓았다.  
갑작스레 삶을 끝내야 했던 공포와 삶에 대한 간절함,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또 그를 향한 그리움, 다시는 잘못된 사회적 대응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 등이 어린이 문학으로 탄생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물론 이후에 태어나 세월호 참사를 잘 모르는 이들도 함께 읽어 나갈 작품들이다.  
어린이 문학인들의 활동은 2014년 4월 16일 이후부터 이어져왔다.  
그 해 67명의 글·그림 작가가 모여 '한뼌그림책'을 만들고 서울 광화문과 경기 안산 등 전국에서 100여 차례 전시와 북콘서트를 진행



'슬이는 돌아올 거래' 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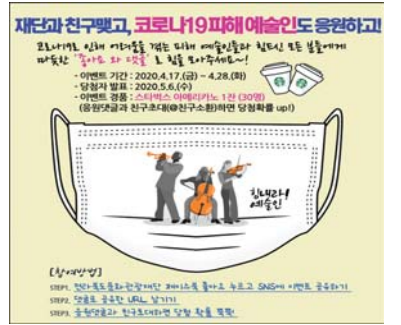
했다. 이를 묶어 '세월호 이야기'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22개 지역을 돌며 4767명의 글과 그림을 받아 2015년 4월16일,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만들었다. 2017년 6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를 결성하고 산하에 '세월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이어갔다.  
2018년 4월 16일에는 진도민,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팽목항 주변에 기억과 성찰의 도보 순례길인 '팽목바람길'을 만들어 달마다 걷기 시작했다.  
슬픔과 아픔을 다루면서도 절망에 그치지 않고 희망을 품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  
'슬이는 돌아올 거래'의 판매 수익금 역시 세월호를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해 만든 '팽목바람길'에 기부된다. /뉴시스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응원'

전북문화관광재단, SNS 이벤트

28일까지... 재단 페이스북 채널

추첨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 증정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예술인을 응원하는 '재단과 친구 맺고, 코로나19 피해 예술인도 응원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SNS 이벤트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재단 페이스북 채널을 팔로우하고 예술인을 응원하는 댓글을 단 후 친구가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태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첨 결과는 5월 6일 재단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총 30명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아메리카노 1잔)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김정민 홍보팀장은 "페이스북 친구 맺기 이

벤트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재단 SNS 활동에 관심을 갖길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예술계에 응원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홍보팀(063-230-7472)에 문의하면 된다. /장문성 기자

#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

세월호 유족 합창단들, 참사 6주기 맞아 책 출간

2020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이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들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문학동네가 펴낸 세월호 유족 합창단 '4·16 합창단'이 짓고 김훈 작가와 김애란 작가가 참여한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과 동화와 동시 작가 8명의 작품을 모은 '슬이는 돌아올 거래' 등이다.  
4·16합창단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의 부모, 일반 시민단원들이 함께 화음을 이뤄 노래하는 합창단이다. 2014년 12월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작은 노래모임에서 시작됐다. 5년 동안 270여회에 달하는 공연을 선보이며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잊지 않겠어', '어느 별이 되었을까', '약속해' 등 합창단이 부른 곡에 대한 소개와 이들이 보낸 지난 시간의 기록들이 담겼다.  
단원들이 직접 적은 합창단 활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마음들은 물론 합창단의 노래를 듣고 작성한 김훈 작가와 김애란 작가의 에세이도 담겼다. 무엇보다 4·16합창단이 직접 녹음한 10곡이 담긴 음반이 포함돼 있다.  
김훈 작가는 책 속 '울음에서 노래로' 중 "그들의 노래는 일상의 사소한 구체성에 바탕해 있었고,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슬픔을 감싸서 슬픔을 데리고 슬픔이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김애란 작가는 4·16합창단을 "자신들의 숨결로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 사이에 사다리를



'노래를 불러서 네가 온다면' 표지

놓는 분들" "슬픔 속에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분들, 그렇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꾸리기 위해 오늘도 용기를 내야 하는 분들, 노래에 기대, 노래가 되어 더 먼 곳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훈 작가와 김애란 작가의 고료와 인세를 모두 기부했다. 책 인쇄 전액은 합창단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활동비로 쓰일 예정이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도 흔쾌히 '네버 엔딩 스토리'를 4·16합창단 음반에 담을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 TBN 전북교통방송 춘·하계 프로그램 개편

20일부터... 사회공헌 등에 중점

TBN 전북교통방송은 오는 20일부터 2020 춘·하계 프로그램을 개편, 방송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보 실시간 제공 ▲교통안전 방송 확대 ▲지역 상생 위한 사회공헌 ▲산업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간판 프로그램 '출발! 전북대행진'에서는 '안전사고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대중교통 등을 다루는 교통안전 코너를 편성해 도심 교통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또 시사 프로그램인 'TBN 전북매거진'을 통해 도내 주요 이슈와 뉴스 인물을 다루고, 지역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특화된 방송을 한다.  
이성원 전북교통방송 본부장은 "전북 도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봄 개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공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취취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NCCK "21대 국회, 공정·평등·평화 국회 대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6일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형목 목사 이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NCCK는 제21대 국회에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는 성숙한 국회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NCCK는 "코로나19 이후 예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정 국회',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 아닌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

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 국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생태국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NCCK는 이날이 세월호 참사 6주기임을 상기시키며, "당선자들과 각 정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 온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 괴테 문학의 최고봉 톨아보기

신간도서 '불멸의 파우스트'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정치가이자 과학자, 자연연구가였던 세계적인 문학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가 20대의 나이에 구상하기 시작해 80대가 되어서야 완성한 '파우스트'.  
'인류의 필독서'라는 명성이 따르지만 난해하고 어렵다는 반응도 적잖은 작품이다.  
독문학자 안진태 강릉원주대 명예교수는 16일 수백년 동안 불멸의 서사로 사랑받아 온 괴테의 '파우스트'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불멸의 파우스트'를 펴냈다.  
파우스트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따와 지은 작품으로, 세상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도 절망에 빠진 노학자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에 빠져 계약을 맺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파우스트 박사가 쾌락을 좇고, 방탕하고, 파오를 깨닫고, 결국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패배하지만 신의 구원을 받는 과정에 문학과 철학, 종교와 정치, 전쟁 등 인간 사회 속 다양한 문명들을 아우르고 있다.  
안 교수는 '파우스트'를 괴테의 지식과 사상의 총체로 규정하며 이야기 전반, 주술적 요소, 종교적 개념, 여성상, 어린이상 등을 심도 깊게 분석한다. 나아가 파우스트가 현대에는 어떻게 비추어지기도 되겠다.100쪽, 열린책들, 4만5000원. /뉴시스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